

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위해 민·관 머리 맞댄다

-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·관 논의 협의체 구성
- 주차장, 고가교하부, 철도부지 등 다양한 도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논의 예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도시 내 부족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전담조직(이하 TF)을 구성하고, 3월 7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한다.

○ TF는 급증하고 있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입지 부족 등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고 있는 택배 운행거리 증가, 교통 체증 및 대기 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성(출범)하였다.

* 1인당 택배이용량(건/연) : ('19) 53.8, ('20) 65.1, ('21) 70.3, ('22) 81.9, ('23) 100.4

□ TF에는 지자체, 공공기관(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 등),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며, 주차장, 고가교 하부, 철도부지 등 도시 내 유휴부지를 생활물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.

○ 3월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, 수시로 TF를 통해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주차장 유휴 공간에서 택배 환적작업을 허용하여 도시 주차장을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주차장 입지, 시간대 등을 중점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“급증하는 도시 물동량을 처리하고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업계의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이 긴요한 상황”이라고 하면서, “민·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	(044-201-4006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리	(044-201-4013)
		담당자	주무관	이동우	(044-201-4008)